



ARARIO GALLERY

박영숙 | 그림자의 눈물

Park Youngsook  
Tears of a Shadow

2020. 3. 26 - 6. 6

ARARIO GALLERY SEOUL

## 박영숙 | 그림자의 눈물

### Park Youngsook | Tears of a Shadow

March 26 – June 6, 2020

ARARIO GALLERY SEOUL

아라리오갤러리는 여성 사진가로서 한국 현대 사진사와 페미니스트 운동에 주요한 역할을 해온 박영숙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박영숙은 역사적, 사회적으로 불온한 배제의 대상으로 여겨진 여성성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도발적인 인물 초상사진을 주로 작업했다. 그는 여성의 신체를 작업의 전면에 위치시켜 여성의 몸과 자아에 대한 사회적 억압, 부조리, 성적 권력 구조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처음으로 인물이 아닌 자연만을 담아낸 <그림자의 눈물> 연작 18점을 선보이며, 삶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과 끈질긴 탐구에서 비롯된 여성, 그 정신의 근본을 쫓아온 박영숙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자 한다.

박영숙의 <그림자의 눈물>은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첫 번째는 인물의 부재이다. 기존의 인물 사진 작업은 여성의 신체가 작품의 화면 전체를 압도하는 구도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여성이라는 존재를 각인시키려는 과감한 시도의 결과물이었다. 반면, <그림자의 눈물>은 여성의 신체가 아닌 곳자왈이라는 제주도의 한 지역을 담고 있다. ‘가시덤불 숲’의 제주방언인 곳자왈은 쓸모가 없어 버려진 땅이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의미하기도 한다.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이 자기 멋대로 자란 숲에서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진동한다. 누구에게도 방해 받지 않은 여기, 이 금기의 장소를 기어코 담아낸 작가의 시선은 누군가 존재했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며,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삶에 대한 여성의 의지와 그 영적인 울림을 내면의 목소리로 바꾸고 있다.

이 시리즈의 또 다른 축이 되는 것은 인물이 부재한 자리를 채우는 오브제들이다. 박영숙은 지금까지 그가 수집해왔던 골동품 사진, 분첩, 웨딩드레스와 같은 물건들을 곳자왈에 배치했다. 삼켜질 것 같이 뻘뻘하게 들어선 나무 사이에 무심히 놓인 오브제들은 그의 존재를 인지하게 하는 장치이다. 사람의 출입이 금지된 곳에 침투한 박영숙의 흔적이 불현화음으로 울리는 이 풍경은 관람객들을 금기된 것과 허락된 것, 일상적인 것과 신비로운 것, 무의식적인 것과 의식적인 것들이 맞닿는 교차로로 이끈다. 금지된 곳에서 다시 시작되는 길, 곳자왈로 향한 이 길은, 작가의 말을 빌어 수 많은 여성이 “진정 그리 살아 내고 있었던” 길이 아닐까. 그 길은 여성의 삶과 박영숙의 정신을 엮어온 성찰의 길이며, 자유로운 정신의 무한한 활동을 통해 확장되고 있는 박영숙의 예술 세계로 열린 길이 될 것이다.

Arario Gallery opens *Tears of a Shadow*, a solo exhibition by Park Youngsook. Park has played a major role in the history of Korean photography and the feminist movement. The artist has been working with portrait photography, highlighting the sexuality of women which was considered incomplete and a target of subversive exclusion in society. Positioning women's body in a provocative way, Park raised questions about the inequality of gender dynamics and the women's history of oppression. Comprised of eighteen works, *Tears of a Shadow* will showcase Park's first landscape photography series which followed her persistent attempt, curiosity and investigation of women's life and the foundation of the female spirit.

Park's *Tears of a Shadow* revolves around two aspects. The first is the absence of people. In her past projects, women's bodies are boldly positioned at the foreground of the photography as a result of her attempt to strongly imprint the existence of a female figure. On the other hand, *Tears of a Shadow* focuses on Jeju Island's *Gotjawal*, 'a thorn bush forest' in Jeju Island dialect. It also means no man's land because this abandoned land cannot be used for any human use. The uncontrolled landscape, in which the depth is unfathomable, oscillates with unknown anxiety and fear. Park's relentless and daring perspective in capturing prohibited land heavily alludes to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someone here, the prohibited place where touched by no one. It further translates women's powerful desire to life, nature and the echo of the soul within, which cannot be interrupted by anyone.

Another aspect of this series is the objects replacing the absence of people. Park placed objects she collected throughout her life such as antique photography, cosmetic powder case and old wedding dress in *Gotjawal*. The objects that looks carelessly arranged in the densely grown woods, looking like to soon engulf the person who enters, is a tool enabling one to recognize Park's trace in the desolate place. This scene—where the artist's trace inharmoniously trembling with the abandoned land—leads the viewers to the crossroad of the prohibited and the permitted, the everyday and the mystical, and the unconscious and the conscious. The road to *Gotjawal*, that starts where it has been forbidden to take on, is the road Park tenaciously had journeyed through, in the artist's word, a road that “has been truly, enduringly and silently lived (by women).” This road is Park's contemplation in the life of women and her own soul and is a way of opening to her art where mind freely expands to the infinite.



***Tears of a Shadow 1***

2019

C-Print

180 x 240 cm, Edition of 5

120 x 160 cm, Edition of 5



***Tears of a Shadow 2***

2019

C-Print

180 x 240 cm, Edition of 5

120 x 160 cm, Edition of 5



***Tears of a Shadow 3***

2019

C-Print

180 x 240 cm, Edition of 5

120 x 160 cm, Edition of 5



***Tears of a Shadow 4***

2019

C-Print

180 x 240 cm, Edition of 5

120 x 160 cm, Edition of 5



***Tears of a Shadow 5***

2019

C-Print

180 x 240 cm, Edition of 5

120 x 160 cm, Edition of 5



***Tears of a Shadow 6***

2019

C-Print

180 x 240 cm, Edition of 5

120 x 160 cm, Edition of 5



***Tears of a Shadow 7***

2019

C-Print

180 x 240 cm, Edition of 5

120 x 160 cm, Edition of 5



***Tears of a Shadow 8***

2019

C-Print

180 x 240 cm, Edition of 5

120 x 160 cm, Edition of 5



***Tears of a Shadow 9***

2019

C-Print

180 x 240 cm, Edition of 5

120 x 160 cm, Edition of 5



***Tears of a Shadow 10***

2019

C-Print

180 x 240 cm, Edition of 5

120 x 160 cm, Edition of 5



***Tears of a Shadow 11***

2019

C-Print

180 x 240 cm, Edition of 5

120 x 160 cm, Edition of 5



***Tears of a Shadow 12***

2019

C-Print

180 x 240 cm, Edition of 5

120 x 160 cm, Edition of 5



***Tears of a Shadow 13***

2019

C-Print

180 x 240 cm, Edition of 5

120 x 160 cm, Edition of 5



***Tears of a Shadow 14***

2019

C-Print

180 x 240 cm, Edition of 5

120 x 160 cm, Edition of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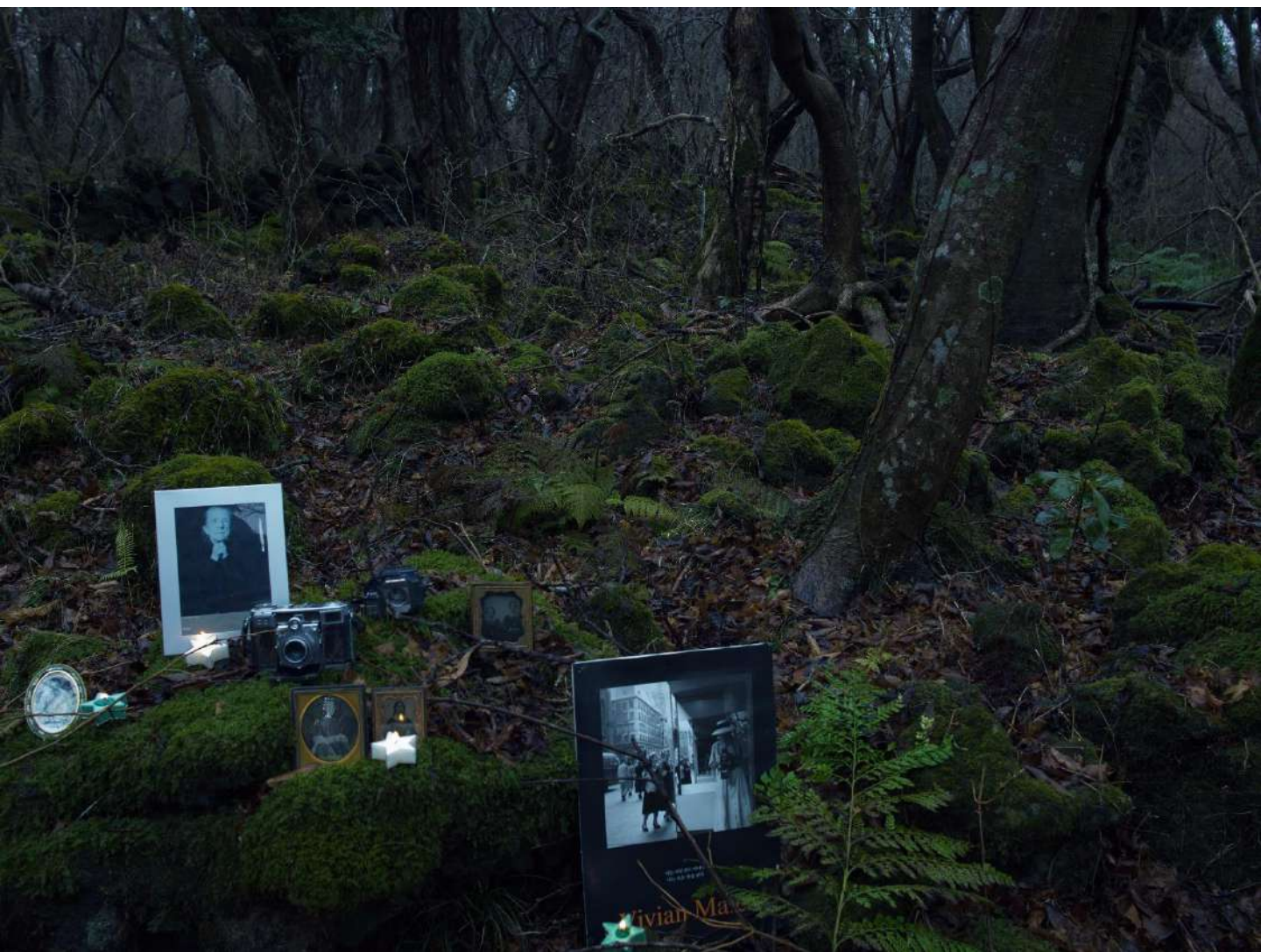
***Tears of a Shadow 15***

2019

C-Print

180 x 240 cm, Edition of 5

120 x 160 cm, Edition of 5



***Tears of a Shadow 16***

2019

C-Print

180 x 240 cm, Edition of 5

120 x 160 cm, Edition of 5



***Tears of a Shadow 17***

2019

C-Print

180 x 240 cm, Edition of 5

120 x 160 cm, Edition of 5



***Tears of a Shadow 18***

2019

C-Print

180 x 240 cm, Edition of 5

120 x 160 cm, Edition of 5

## 그림자의 눈물

제주에 여러 번 갔었지만 '곶자왈'은 처음이었다. 이 독특한 場所, 내가 처음 찾아간 '곶자왈'에 온 몸이 반응했다. 불규칙의 질서가, 무한의 시간을 느끼게 하는 고목과 괴암이들이, 그 어떤 무질서의 리듬이 흐르고 있었다. 그 곳은 나를 끌었다. 키가 커도 너무 커서 결코 고사리라 생각 못 할 정도로 큰 고사리가 나를 반겼다. 그리고 꾸불꾸불한 기괴한 나무들이 여기저기 누워있었다. 넘어져 있었다. 초록색 이끼로 옷을 지어 입은 바위들이 이리딩굴 저리딩굴 널리 펼쳐 저, 이곳 저곳이 다 묵묵했다. 장희빈의 사약에 썼던 '천남성'이라는 꽃이 요란한 색조로 뽐냈지만 웬지 무서웠다.

4월이 되니 유난히 원초적인 초록색들이 빛과 놀이를 했다. 각 나무가지들이 내 눈앞에서 이리 엉키고 저리 얽히며, 그 어떤 태고의 신비로움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 초록 세계들이 만든 저 陰地의 기운들이 차가웠다 축축했다 아니, 미끈거렸다. 그 모든 느낌들이, 문득, 바로 여기야 했다. 여기, 여성들 만의 場, 여성의 場, 나의 場, 이로 구나 싶었다. 나는 이 분위기들에 벌서 취해, 그 어떤 이상한 무의식의 체계와 마주하고 있었다. 이미 그 곳으로 빠져들었다.

'곶자왈', 두 음절로 이루어진 제주인들 만의 방언, 이 두 음절인 '곶자왈'의 '곶'은 '숲'을 의미하고, '자왈'은 '자갈과 바위 돌들이 많은 곳을 의미한다고 한다. '곶자왈'이라는 이름은 결론적으로 '쓸모 없는 땅'이라는 느낌을 벌써 느끼게 했다. 제주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또는 그들의 심정표현이 그렇게 지어 부르고 싶었던 것 같다. 이름을 그렇게 지어 부르고 보니 그 장소를 이미 제주인들의 마음속엔 "버려도 되는 땅"이 되어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가시덩굴을 이리저리 제쳐가며 그 숲에 접근하는 나에게 이미 "곶자왈"은 버려진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했다는 말이다. 자연스럽게 사람의 왕래가 끊겼을 것이고, 그 누구의 발도 딛은 흔적 없어 보이니 "버려 졌다"함을 스스로 풍겨 내고 있었다.

내가 '곶자왈'을 찾았을 때, 그 곶자왈은 이미 쓸모 없는 땅, 버려진 땅이 되어 있었다. 인적도 없고, 텅 빈, 그 곳은 웬지 괴기스러웠다. 소름이 돋는 듯 오싹했다. 사람들은 그 '곶자왈'에 가기를 싫어한다고 들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까지.

내게 그 곳은 이미 영적인 장소(場所)가 되어있었다. 이미 영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한 순간 영적 에너지로 전환되며 마녀들이 그 곳에 잘 어우러져 흡족 해하며 그 곳에 스며들고 있었다. 유럽의 마녀, 그녀들이 이미 이곳으로 이주해 와 새로운 기운을 풍겨내고 있었다.

그 마녀들은 '마녀화형'에 희생되지 않았고, 곶자왈은 버려진 곳이라는 것을 직관으로 느낄 수 있었기에 스스로 들 이 곶자왈로 이주해 와, 자연스럽고, 평화롭고, 자신들이 중심인 삶을 일궈낼 수 있었다 싶다. 그 마녀, 내가 초혼한 '마녀'가 내 초혼에 응했던 것 같다. 마녀들의 현명함과 지혜로움으로 바다 건너 저쪽에서 이 쪽 곶자왈로 배를 타고 이주해 올 수 있었고, 이 곳의 주인으로 지켜 내고 있었던 것 같다. 이 버린 땅에 진정한 주인이 되어 지켜내며 살아낸 것이다.

'여기', '이 곳에서 현명하고 슬기로운 삶으로 그녀들의 그림자가 그 흔적이 배려와 사랑의 눈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그 아늑하고, 평화로우며, 고요하고, 포근한 곳으로 바뀌 내고 있었다. 진정 그리 살아 내고 있었다.

마녀, 그 "버려진 존재"들이 이 "버려진 땅"에 와서 동양의 사유방식을 접하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그 소스라쳐 올라온 느낌들이, 무의식의 이야기들이 무의식의 감성체계로 바뀌었고, 그녀들의 마음의 소근거림들이 시각언어가 되어 드러내어졌다.

## Tears of a Shadow

Although I've been to Jeju Island many times, this was the first time I'd been to Gotjawal, a unique area where my entire body had a visceral reaction. There was an order to the inconsistency, and there were old trees and strangely shaped rocks that made me feel a sense of infinite time and the distortion of a certain rhythm. In short, this area drew me in. Brackens (large ferns), which were too tall to be considered ordinary brackens, welcomed me. There were also bizarre-looking trees everywhere you looked, fallen trees, and rocks draped in green moss covering the area. Yet, they were all silent. The *Arisaema amurense* (small cobra lily) flower that was used to poison Royal Noble Consort Hui of the Indong Jang clan for the death penalty during the Joseon Dynasty was a little scary to stumble upon, despite its brilliant color.

In April, the original greenery of plants particularly enjoys receiving sunlight. Each branch is entangled in different directions and radiates a certain ancient mystique. The energy of that shaded land under the greenery was cold, damp, and slippery. All my senses told me this was the right place to photograph. I thought this was somewhere only for women—a female ground—but a place just for me at the same time. The truth is that I was already immersed in this atmosphere and was facing a different reality—an unknown state of unconsciousness.

"Gotjawal" is a term derived as a result of a local dialect from residents of Jeju Island that consists of two parts. The word *got* means "forest," and *jawal* means "a place with a great deal of gravel and stones." In essence, Gotjawal feels like "a useless land." I felt that Jeju residents expressed what they firmly believe by naming this place in such a way. As inferred by its name, people on Jeju Island came to firmly believe that Gotjawal was "a land that can be discarded." For me, someone who approaches the forest through thorny vines, it was clear that Gotjawal had already been abandoned. Fewer people had probably visited this forest over the years, and now there is almost no trace of any visitors. This is why we can say the forest has been "deserted."

When I visited Gotjawal, it was already a "useless land," a "deserted land." With no human beings present, it was empty and, therefore, a somewhat bizarre spectacle. It was creepy enough to give me goose bumps. I've heard that people do not want to go to Gotjawal. I've also heard that adults tell children not to go there because it is dangerous.

For me, the place had already become a spiritual place. It was filled with spiritual energy. Actually, it converted itself into spiritual energy in one single moment for me. The "witches" had already moved here and were emitting a new spirit, while guarding the area in good harmony with nature.

Those witches that had not been sacrificed through witch hunts throughout the centuries in Gotjawal were living a very nature-centered, peaceful, and self-reflective life. The witches whose spirits I invoked seem to have responded to my invocation. The witches that represent wise and sensible women seem to have already emigrated by ship here to Jeju and defended this forest as the true owners of a "deserted land."

Here, in this forest, those wise and sensible women were being shed as tears of a shadow and tears of thoughtful consideration; they were transforming the forest into a peaceful and serene place. Did the witches, the "deserted beings", come to the "deserted land" to meet with the Eastern way of thinking and be comforted?

The sudden rise of the emotions, the stories of unconscious stories have transformed into unconscious feelings. And, the whispers from the mind have now been revealed through visual languages.

Park Youngsook  
March 6, 2020

## 박영숙 PARK Youngsook

Born in Cheonan, 1941

Lives in Gyeonggi-do and works in Seoul, South Korea

### Education

1986 MFA of Photography and Desig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1963 BA of Histor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 Solo Exhibition (Selection)

2020 *Tears of a Shadow*, ARARIO GALLERY I Samcheong, Seoul, Korea

2017 *Could not have left behind*, The Museum of Photography, Seoul, Korea

2016 *Mad Women – The Utterance*, ARARIO GALLERY, Cheonan, Korea

2009 *Cry Crack Crazy*, Goeun Museum of Photography, Busan, Korea

2006 *Mad Women Projec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Light Gallery", Seoul, Korea

2005 *Mad Women Project*, Sungkok Art Museum, Seoul, Korea

2004 *Mad Women Project*, The Third Gallery Aya, Osaka, Japan

1982 *Nostalgia*, Pine-hill Photo Gallery, Seoul, Korea

1981 *Portraiture of 36 Friends*, Gonggansarng Gallery, Seoul, Korea

1975 *75 UN Women's Year Photo Exhibition -Equality. Development, Peace*, Central Information Service, Seoul, Korea

### Group Exhibition (Selection)

2019 *Re-classification : The night leads to the night*, SUWON IPARK MUSEUM OF ART, Suwon, Korea

*Na Na Land: It's My World*,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2018 *Not Allowed to ban*, SUWON IPARK MUSEUM OF ART, Suwon, Korea

*Soft Power*, CHEONGJU MUSEUM OF ART, Cheongju, Korea

*Frames after Frames: Modern Photography Movement of Korea from 1988 to 1999*, Daegu Art Museum, Daegu, Korea

2017 *Crack*,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Joyful Journal*, Seohak-dong Sajingwan, Jeonju, Korea

2016 *Public to Private: Photography in Korean Art since 1989*,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2015 *Feminists Artist Festival*, Jeonbuk Museum of Art, JeonJu, Korea

2014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 ARC Gallery, Chicago, USA

2014 *Through The Eyes of The Mother*, Women Caucus for Art, Korean/American Feminist, Chicago KCCOC, USA

2012 *Game X Art : War of Bartz Revolution*,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Gyeonggi-do, Korea

*Donated Photographs 2012*,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2011 *PLATFORM ARTISTS - 2011 Incheon Art Platform Artist -in- Residence Program*,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2010 *Working Mamma Mia-For Women All Places Are Work Places*, Women's History Exhibition Hall. Seoul, Korea

2009 *New Digital Age*, Novosibirsk State Art Museum, Russia

2008 *Sister(Eonni) is Back*,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Gyeonggi-do, Korea

2008 *In Commemorat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ailand - Daily Life in Korea*, The Queen's Gallery, Thailand

2006 *Woman. Work. Art-Portrayal of Woman at Work in Korean Art*,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Seoul, Korea

2005 Frankfurt Book Fair 2005: *The Battle of Visions*, Kunsthalle Darmstadt, Frankfurt, Germany

2004 Heyri Festival – *Place / Space*, Heyri, Gyeonggi-do, Korea

2004 *Borderline Cases - Women On The Borderlines*, ART Gallery, Tokyo, Japan

200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UN-BAKKE-NADA”(“being socially excluded”), Dukwoon Gallery, Seoul, Korea

2003 *Six photographers Six Codes. Work, Money, Power, the City, Sex, new Technology*, Sungkok Museum, Seoul, Korea

2002 *Bodyscape*, Rodin Gallery, Seoul, Korea

2002 *The 2nd Women's Art Festival. East Asian Women and Her Stories*, Women's Community Center, Seoul, Korea

2002 *Pause. 쉼*, Gwangju Biennale, Gwangju, Korea

2001 *Women and Time*, Women and Space, Alternative Space Pool, Seoul, Korea

2001 *The Spirit of May. The Lost*, Gwangju City Art Museum, Gwangju, Korea

1999 *Seoul Photographs. The Photograph Look at Us*, Seoul Art Center, Seoul, Korea

1999 *Women's Art Festival/ Patjis on Parade*, Seoul Art Center, Seoul, Korea

1998 *Visual Extension of Photographic Image. Reality and Fantasy*,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 Museum Collection (Selection)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Seoul Museum of Art, Korea

Hanmi Photo Museum, Seoul, Korea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Gyeonggi-Do, Korea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Korea

Sungkok Museum, Seoul, Korea

Hanul Publishing Company, Seoul, Korea

Research Institute of Asia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Ewha Women's University Museum, Seoul, Kore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eoul, Korea

Photo Museum, Yeongwol, Gangwon-Do Korea

## ARARIO GALLERY

### SHANGHAI

1F, No. 2879 Longteng Avenue, Xuhui District, Shanghai T. +86 21 5424 9220

### CHEONAN

# 43, Mannam-ro, Dongnam-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Korea T. +82 41 551 5100

### SEOUL | SAMCHEONG

# 84 Bukchon-ro 5-gil, Jongno-gu, Seoul, Korea 03053 T. +82 2 541 5701